

##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에 남긴 것

김은비(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 지정학적 에너지 위기와 한국에의 함의

이태의(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 실장/선임연구위원)

#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에 남긴 것



김은비(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 이번 전쟁은 중동의 기존 대리전 구도를 넘어, 미국·이스라엘·이란이 직접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중동 안보 질서의 작동 방식을 바꾸어 놓았음
-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통항 통제와 협상 조건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렛대로 부상했음
- 걸프 아랍국가들은 대이란 경계와 대미 의존도를 재조정할 것이며, '저항의 축'의 결속은 약화되었음

## 1.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휴전

2026년 2월 28일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으로 시작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4월 8일 2주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4월 22일 현재 이 휴전은 불안한 정지 상태로, 후속 협상 일정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역시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인명 피해도 이미 작지 않다. 이란에서는 3천 명

이상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도 3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천 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변 아랍국가로까지 번졌고, 군사시설은 물론 에너지·민간 인프라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전쟁은 세 나라 사이의 군사충돌을 넘어, 중동 전역의 안보와 경제 기반을 함께 흔드는 지역전으로 번진 셈이다.

한국에도 곧바로 파장을 미쳤다. 우리 정부가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다.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기여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번 전쟁은 한국에도 전쟁의 정당성, 한미동맹, 국내 정치·경제적 부담이 한데 얽힌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임시 휴전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그 뒤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압박, 후속 협상의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남았다.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의 입장 차이도 적지 않고, 협상국면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반복되면서 상황은 더 불안정해졌다. 다만 이번 전쟁을 거치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동안 대리세력에 기대 이어지던 중동의 그림자 전쟁이 이번에는 국가 대 국가의 직접 충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채 교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전쟁이 중동에 남긴 후과만큼은 이미 적지 않다.

## 2.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 부각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 통로였다.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 해협을 지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안팎으로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 해상 원유 거래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다. 대체 파이프라인이 없지는 않지만 수송 능력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호르무즈의 불안은 곧바로 유가, 운임, 보험료, 공급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란과 오만 사이의 이 좁은 바닷길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숨통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란은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주변 산유국과 세계 경제는 물론, 이란 자신의 무역도 이 해협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봉쇄는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이면서 동시에 자국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그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었다. 이는 이란이 이번 전쟁을 단순한 군사충돌이 아니라, 정권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사활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호르무즈는 단순한 봉쇄 카드가 아니다. 열어주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협상 수단이 되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자산, 통항 관리 방식이 한꺼번에 얽혀 논의되고 있고,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오히려 이란의 '호르무즈 지렛대'를 굳혀 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란이 환경보호와 통항 안전을 내세워 사실상의 통행료 부과 가능성까지 흘리는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이 군함과 항공전력을 동원해 맞서고 있지만, 그 부담 역시 작지 않다. 이란은 짧은 경고와 제한적 통제로도 선박 운항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해상 통제를 위해 훨씬 많은 전력과 시간, 정치적 비용을 써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중순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호르무즈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한 기여를 요구했지만 동맹국들의 반응이 대체로 신중했던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4월 22일 현재 통항은 여전히 크게 제한돼 있다. 수백 척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여전히 걸프 해역에 묶여 있다. 호르무즈는 이제 핵 문제 못지 않게 중동 질서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올라섰다.

## 3. 아랍국가의 대외정책 변화

이번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카타르 등 이란 주변의 아랍국가들은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란은 이를 미국의 대이란 공습에 협력한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설명했다. 실제로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항만, 도시, 정유·가스 시설, 담수화 시설 등 경제·민생 인프라까지 공격을 받았다.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단순한 외부 전쟁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 발전 모델을 떠받치는 핵심 시설의 취약성을 노출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반미·반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하며, 주변국의 시아파 무장세력을 조직·지원해 저항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란과 걸프 아랍국가들은 모두 무슬림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이란의 시아파 중심 신정체제와 신정 공화제 도입이라는 이슬람혁명 정신의 수출 노선은 특히 주변 수니파 왕정국가들에게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아랍국가들은 그동안 이란을 일방적으로 적대하기보다는, 자국 내 시아파 공동체 문제를 관리하고 에너지·무역·지역 안정을 고려하면서 갈등의 전면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걸프협력기구(GCC)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은 이러한 균형 구도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란과 걸프 아랍국가들 간 경쟁의 심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증폭은 이스라엘 및 친미 아랍국가들의 안보협력 확대를 촉진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전쟁은 걸프 국가들의 대 이란 경계심을 키웠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미국 안보 우산의 한계도 드러냈다. 미군 기지와 안보협력 체제가 존재함에도 전쟁은 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과의 밀착이 이란의 보복 표적이 되는 역설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에 전후 아랍국가들은 대이란 강경화를 유지하는 한편, 안보문제에서 미국에의 의존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기보다 자국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GCC 내부의 협력 강화하며, 제3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의 다변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안보 차원에서 핵 옵션과 미사일방어 체계 강화를 더 강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포함된다. 즉, 향후 걸프 지역은 긴장 완화와 군비경쟁, 자율안보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월 중순에는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이 참여하는 전후 중동 안보구상이 논의되었고, 여기서는 걸프 국가 보호, 에너지 시장 안정, 공급망과 식량안보의 복원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는 중동 안보 질서가 더는 미국과 이란의 양자 대결만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역내 중견국들이 다자적 위기관리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4. 저항의 축의 약화

이란은 자국 영토 밖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전방방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의 친이란 시아파 무장세력을 조직했고, 이들은 소위 '저항의 축'이라는

이름 아래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그림자 전쟁을 수행해 왔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면에서도 저항의 축 내 프록시들은 이란과 연계하여 이스라엘과 미군을 향해 집중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후티, 헤즈볼라, 이라크 친이란 무장세력은 위협적 수사를 이어가면서도 이란이 기대했던 수준의 동시적·전면적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누적된 프록시 세력의 약화가 있다. 하마스나 이란이 약화된 기회에 주변의 위협을 없애겠다는 2024년부터 이스라엘이 수행한 '새로운 질서' 작전으로 이들 프록시의 전력은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였다. 헤즈볼라는 2024년 9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망, 무선호출기 폭파사건 등을 거치며 리더십과 전력에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약화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현실화하였다. 헤즈볼라는 전쟁 개시 하루만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그 강도는 2023년에 비해 치명적이지 않았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역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월 8일에는 이라크의 이슬라믹 레지스탕스가 2주간의 휴전을 일방 발표하는 등 전면전 참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제한적인 개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티는 여전히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에서 해상교란 역량을 보유한 잠재적 위협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전쟁 개시 한 달 만인 3월 28일에서야 늦은 개입을 하고, 그 활동도 이스라엘을 향한 제한된 수량의 미사일 공격만 이어가는 등 이란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세력이 더이상 테헤란의 전략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각자의 생존과 국내 정치, 역내 압박을 함께 계산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결국 저항의 축은 동시성과 강도 측면에서 장기적·통합적 압박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란의 지원을 통해 생존과 발전을 도모했던 프록시 세력들이 조직 자체의 전력 저하와 더불어 지원자인 이란으로부터 과거 수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아파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반미·반이스라엘 저항 담론은 네트워크의 충성 기반으로 남아 있어, 저항의 축의 완전한 소멸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위협 균형의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세력 규모와

네트워크 결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동에서 형성되었던 ‘이스라엘 및 친미 아랍국가 연합’ 대 ‘저항의 축’이라는 대립적 위협 균형 구조는 안정성을 상실하였다. 향후 저항의 축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의 지원을 통해 세력을 재건함으로써 새로운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 5. 중동정세 전망과 함의

전쟁 이후 중동은 이전보다 더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걸프국가들은 자국 군사력 강화와 역외 협력 확대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역내 군비경쟁과 안보 불안정도 심화될 수 있다. 전후 중동 질서는 평화체제라기보다 새로운 억지 균형에 가까운 형태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의 휴전이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4월 22일 현재 미-이란 간의 2주 휴전은 불안한 연장 국면을 맞이하였고, 호르무즈 해협도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제한 통항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동 질서는 자유로운 통항과 안정된 에너지 흐름을 전제로 한 질서가 아니라, 제한적 통항, 간헐적 봉쇄, 협상과 압박이 공존하는 장기 불안정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란 역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IRGC 등 강경파가 전시 통제를 지속하며 국민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전쟁 피해, 정치적 불만은 사회 내부의 긴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을 위시로 한 진보, 개혁 성향의 지식인과 국민들의 강경파에 대한 저항으로 내부 갈등이 커진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란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란의 지원에 의존하던 저항의 축 세력은 그 결속력이 일정 부분 약화할 것이나, 이들은 느슨한 네트워크를 지속하며 내·외적 세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와 에너지 가격의 원상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4월 전망에서 호르무즈의 사실상 폐쇄와 그 여파로 국제 유가에 상당한 위험 프리미엄이 붙었고, 설령 통항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2026년 후반까지

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사회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에너지의 운송 루트를 찾고, 대체에너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다.

앞으로 중동의 안보는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암살, 사이버 공격, 심리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전장 역시 군사기지뿐 아니라 민간 인프라, 해운, 에너지 시설 쪽으로 더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연동하여 유조선의 운항, 보험료의 급등, 항만과 송유시설의 안전 등도 중동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초래된 중동정세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외교 전략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 등 고위험 해상로에서의 역할 확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을 넘어 한미동맹의 범위 재검토, 국제공공재 제공, 국내 여론 관리, 경제적 비용 분석 등 다차원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과제이다. 특히 중동에서의 군사적 존재감 확대는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지리적 범위 확장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외교정책의 난이도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의 에너지·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스라엘과의 첨단기술 협력도 강화해 왔다. 반면 이란과의 관계는 과거의 친밀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제재와 지정학적 제약으로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진영으로의 과도한 편향은 에너지 안보, 건설, 방산 수출, 무역,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다층적 균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동의 불안정은 곧 한국의 리스크라는 인식의 전환은 이번 전쟁이 한국 안보에 남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김은비**는 2017년 University of Arizon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중동 안보, 중동 정치, 평화구축, 이슬람 등이다. 최근 저술로는 “저항의 축 약화와 중동정세”(『한국중동학회논총』, 2026), “시리아 국가 건설을 위한 평화구축 과정”(『한국중동학회논총』, 202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함의”(『지중해지역연구』, 2025) 등이 있다(srain11@korea.kr).